



제26호

2013년 7월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 청소년 교육 · 문화의 길을 열어갑니다 >>>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소식

www.blue21.or.kr

발행인 장우식 / 편집인 노영훈 이선화 임소희 / 발행일 2013년 7월 19일 / 560-837 / 전주시 중화산동 2가 655-8(3층) / ☎ 063) 905-0218 (fax 227-0650)

청소년을 살리는 지역교육공동체 건설을 제안합니다.



이미영 이사

전북의 미래를 걱정하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급감하는 인구수나 각종 경제지표에서 전북이 이웃 시·도에 뒤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 초 통계청이 발표한 청소년자살률은 우리의 위기감을 더해줍니다. 통계청은 2011년 전북의 청소년자살률이 전국 1위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전북과 인구수나 도세가 비슷한 충북보다 무려 2배나 높다 하니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민으로서, 교육현장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과 책임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것은 전북이 청소년들에게 가장 살기 힘든 곳을 말해주는 지표이며, 가정과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을 지켜보고, 귀 기울여주고, 그들이 힘들고 지칠 때 손을 내밀어주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부모와 교사는 물론, 도민 모두가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도민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전라북도과 전북교육청이 손잡고 지역교육공동체 구성에 나서야 합니다.

이제는 전북지역 전체를 놓고 지역교육공동체를 건설해내는 통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도내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씨줄 날줄로 촘촘하게 엮어, 교육자원화하여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역교육공동체 사업은 적정 규모인 전북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과 청소년들의 구체적 생활공간은 시·군 지역이므로 지역교육공동체의 구체적 로드맵을 실행할 수 있는 단위 역시 시·군 지역입니다. 경기도 혁신학교 사업은 시·군 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의 협조체계 속에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하고, 시는 적극적인 예산투자를 현실화하여 교육을 통한 지역발전을 견인해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지자체의 지역교육공동체 사업은 시대적 흐름입니다. 경기도의 시·군 단위 혁신교육지구 지정,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추진하는 '우리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등이 그 예입니다. 성공의 열쇠는 다른 지역의 답습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얼마나 주체로 나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교육은 학교뿐 아니라 학부모, 주민이 교사로서 나서고 있고, 지역이 교육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교육공간으로 거듭날 때, 마을이 아이들을 길러내고, 언제든지 청소년들에게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지자체에서도 내 고장 아이들의 예술문화교육, 향토역사탐방, 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도농교류, 로컬 푸드 급식지원 등의 사업을 부분적으로 전개하고 있지만,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교육공동체 건설의 핵심 역할은 뭐라 해도 지역교육지원청과 지역교사가 담당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교육장은 지역사회의 교육자원 마련과 주민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강원교육청의 '지역교육공동체 추천 교육장 공모' 제도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교사들의 지역 거주는 지역교육공동체 사업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지도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건이므로, 교육청은 교사들이 지역 거주를 할 수 있도록 우대책을 마련하고, 낡은 교원 사택을 현대화해 증설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작금 전북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역 거주 중등교사의 강제순환전보 방침은 교사들의 지역 거주를 어렵게 하고 지역교육공동체 구성의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므로 반드시 재고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와 주민의 교육자원화는 수많은 일자리 창출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도민과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교육공동체 건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심는순서

02 인사말-이미영 이사

03 교육정책 토론회

04 교육정책 토론회 발제내용 요약 지상중계
제34차 이사회

13 역사·문화와 함께하는 걷기(6,7월)

14 힐링여행-「느리게 걷는 지리산 둘레길」

15 통일 노래가사바꿔부르기대회

15 통일 길거리(3:3)농구대회

20 무주 칠연계곡에 다녀와서

21 조경희 선생님의 들꽃이야기(노루오줌꽃)

22 제5회 이사장배 배드민턴 대회

제6회 그린웨이환경축제

23 신입회원/회원동정/학교급식 직무연수 소개

24 회원 가입 신청서

김승환 교육감 3년 평가 ‘교육정책 토론회’

- 도교육청 교육행정 운영 문제점 분석 및 대안 모색 -



김승환 교육감 취임 3주년에 즈음하여 ‘김승환 교육감 3년 평가’를 주제로 6월 24일(월) 오후 5시 전북여성일자리센터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9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행정 감시와 교육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온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사)교육문화중심 ‘아이행복’,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농촌교육네트워크’ 등 전북지역 4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우리 문화원 정우식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교육정책 토론회에서는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 3년 동안의 교육행정 운영 및 교육정책에 대한 총괄 평가가 먼저 이루어졌다. 이경한(전주교육대학교) 교수는 김승환 교육감 3년의 활동에 관해 ‘진보교육감, 정체성, 교육부, 청렴도, 일등공신’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총괄평가를 진행하였다.



최선호(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부설 연구소) 소장은 교사들의 평가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기초로 하여 도교육청의 교육정책 내용적 측면과 추진 방식 측면으로 김승환 교육감 3년을 교사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발제를 하였다.

김영기(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는 도교육청과 지역사회의 거버넌스에 대하여, 황만길(지역진흥원) 원장은 김승환 교육감의 농촌교육 정책에 대하여, 강윤희(교육문화중심 ‘아이행복’) 이사는 익산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승환 교육감의 지역교육 정책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김승환 교육감과 도교육청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이를 통해 전라북도 교육행정 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승환 교육감 3년의 평가 : 총론

김승환 교육감
3년의 활동에 관해
몇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진보 교육감: 그 교육정책의 가능성과 극복

김승환 교육감은 진보교육감으로 분류된다. 교육에서의 진보는 상대적 약자를 위한 교육에 우선적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3년간 농산어촌과 구도심의 작은 학교 살리기에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진보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혁신학교는 84개의 학교를 지정함으로써 양적인 틀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과 대규모 학교, 중등학교에서는 그 성공을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볼 수 있다.

김 교육감의 정책에서 가장 시행률이 낮은 것은 경쟁교육이 아닌 협력교육 실현 분야이다. 이 분야는 인권이 살아 숨 쉬는 학교와 협력으로 함께하는 민주적 학교가 중점 과제이며, 보수교육집단의 가장 큰 저항을 받고 있다. 역설적으로 김 교육감의 가장 큰 정체성이자 한계를 보인 영역이 인권교육 과제이다.

2. 정체성: 교육전문 행정가와 정치인, 그리고 법률가 사이에서

교육감은 교육전문 행정가이면서 정치인, 즉 교육정치인이다. 교육감은 당선이 되면 두 영역을 자유롭게 넘나들어야 한다. 그러나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전문가이기를 더디 하였다고 본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에 당선되자마자 자신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법률 영역에 지나치게 몰입한 잦은 소송으로 교육전문 행정가로서의 자기 역할을 축소시키고 말았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모습도 갖추지 못하였다. 자신의 교육 권력을 측근들과 지나치게 나누어 가짐으로써 교육 권력을 지닌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정책을 추구하는데 한계를 가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교육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또 다른 권력자들과 대화와 타협이 요구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결벽에 가까운 사이두기로 인하여 정치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실패하였다.

3. 교육부: 전략적 갈등과 협력 사이에서

김승환 교육감은 임기 초부터 교육부와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지속적인 갈등을 빚어왔다. 교육부와의 법적 공방은 대체로 사법부가 교육부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김 교육감이 패배를 하였다. 그리고 각종 정책에서도 교육부와의 마찰을 가져왔다. 도의회의 교육의원들과는 각종 정책과 예산 책정 등에서 진보교육감과의 온도 차이로 인하여 지속적인 마찰을 가져왔다.

김승환 교육감은 상부기관 및 견제기관과의 갈등과 협력 사이에 놓여 있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갈등을 이끌지 못하였고 협력 체제를 구축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교육부의 재정 지원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또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갈등은 풀지 못한 숙제 중의 하나이다. 이 점은 김 교육감의 정무 능력의 시험대를 보여주었다.

4. 청렴도: 깨끗한 교육감과 학교현장 사이에서

김승환 교육감의 취임과 함께 달라진 점은 교육감의 개인적 청렴성이다. 이 점만으로도 교육감은 큰 치적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청렴성과 조직의 청렴성이 함께 높아져야 한다. 김 교육감의 개인적인 청렴성에 비해서 조직의 청렴성이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단위학교에서의 청렴도도 김 교육감의 청렴도에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이 상시 감찰 강화, 학교회계 시스템의 개선 등으로 청렴도를 끌어 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비리 감사와 함께 정책 감사를 강화하여 감사의 기능을 높여 교육감의 강한 청렴도를 교육 현장까지 파급시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

5. 일등공신: 불가근불가원과 가근가근(可近可近) 사이에서

전교조는 김 교육감 당선의 일등공신이다. 전교조는 현재 김 교육감 체제에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김 교육감의 정책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추진을 돕고 있는 반면에, 김 교육감의 행보나 홀로서기를 방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함께 받고 있다.

전교조는 기본적으로 노조이다. 그래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특정 일부 세력들은 김 교육감의 권력을 나누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전교조 출신의 인사 문제가 제기되어 도의회에서 인사특위가 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김 교육감은 당선의 일등공신인 전교조와 불가근불가원의 거리두기를 하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편향인사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

6. 수업: 형평성과 수월성 사이에서

학생은 교육의 대상자이다. 학생에게 어떤 능력을 길러줄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고민은 학력 신장 교육과 인성 교육에서 어디에 설 것인가를 고민하게 한다. 인성교육을 위한 과목과 최소한의 수업 수월성을 위한 과목의 구분은 필요하다. 실제로 학생들의 학력차는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없는 듯이 투명인간 취급하며 수업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형평성을 위한 노력을 지향하면서, 학력신장을 위한 최소한의 수월성 교육을 공존케 할 필요가 있다.

김승환 교육감의 3년을 총론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3년의 행적은 사이에 놓여 있다. 가능성과 한계, 희망과 희망고문, 정체성 확보와 실패, 간언과 야침, 협력과 갈등, 조화와 일방이 그것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그 사이에 있다. 그러나 그 사이는 중심에서 벗어나 후자 방향으로 경도해 있다고 보고 싶다. 그 책임은 김승환 교육감, 그리고 그 주변에서 권력을 탐하고 나누는 자에게 있다.

김승환 교육감 3년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김승환 교육감은 진보교육감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교육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논의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은 5~6월에 5차례 교육정책 간담회를 열어

김승환 교육감 3년에 대해 진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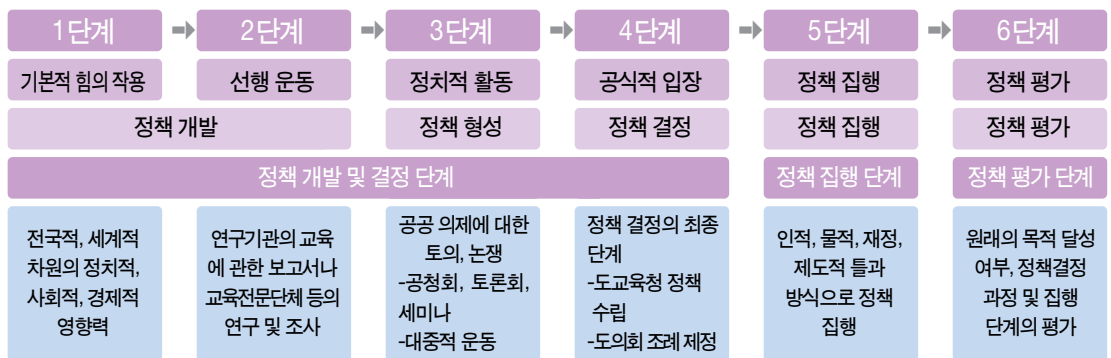
교육정책의 내용적인 측면은 일부 긍정적인 측면 있어

전라북도교육청은 2012년 4대 주요 정책을 제시하였다. 4대 주요 정책은 1.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인성·인권 교육 실천 2.민주사회에 기여하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 3.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4.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부구현 등이다.

교육정책의 총론적인 방향 설정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리고 청렴도 상승, 혁신 학교의 일부 성과, 무상급식 확대, 학생인권조례 제정 노력 등은 여러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도교육청의 교육정책 추진 방식은 심각한 문제

그러나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일반적인 정책 개발 및 형성, 결정과정, 정책 집행 및 평가 과정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교육정책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전북 지역 실정에 맞는 기초 조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청회나 토론회, 세미나가 활발히 열려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의 수렴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 속에서 교육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래야 교육정책이 현실성을 가질 수 있으며, 교육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관련 집단 간의 이해와 충돌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위에서 정책 개발 및 정책 형성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와 정책공보담당관실, 제대로 된 역할 수행 못해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전북교육정책연구소와 정책공보담당관실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전북지역의 특성과 현실에 알맞은 교육제도 및 정책 등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교육정책연구소가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특히 김승환 교육감은 초대

교육정책연구소장에 도의회의 적극 반대에도 불구하고 측근을 임명하였다. 그래서 도의회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차기 교육감 선거를 준비한다는 오해를 받는 상황에서 본래의 기능인 전북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정책공보담당관실은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각종 세미나와 정책토론회, 전북교육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을 기획 조정하고 전북교육 의제에 대해 공청회, 토론회를 열어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기보다 학부모 관련 사업이나 농산어촌 사업 등의 직접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현장의 의견 수렴을 소홀히 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을 위한 지역시민사회와의 소통도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과부와 다른 관점의 사업이나 분산돼 있는 도교육청의 각종 사업이 조정되지 않아 학교현장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두 기구가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형성하는 과정을 소홀히 한 채, 각종 정책이 결정되고 추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 등 진보 일부세력의 의견이 너무 일방적으로 반영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교사를 비롯한 교육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계 내에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방적 내리먹이기식 도교육청의 교육정책 집행 방식

이러한 상태에서 결정된 교육 정책이 현장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자, 도교육청은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매우 강압적인 방식으로 학교에 지침을 내려 보내고 있다. 수준별 이동수업 등에서 도교육청의 지침을 위반할 시에는 1단계 : 특별 컨설팅장학, 2단계 : 종합감사, 3단계 : 행, 재정적 제재를 가한다는 공문을 여러 차례 내보내고 있다.

이러한 도교육청의 지침 내리먹이기식 방식이나 지침을 어길 시에는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하는 방식은 김승환 교육감이 그렇게 반대하고 대립했던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 방식과 너무도 많이 닮아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원평가제, 자율형 사립고,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등 이명박 정부의 지침을 거부하여 수많은 행·재정적 조치를 당하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비슷한 방식으로 학교를 통제하고 있는 도교육청의 모습은 얼마나 비합리적인가?

도교육청은 과거처럼 학교 현장을 지도, 감독, 통제하는 방식으로 교육행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학교 현장이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활발하게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 전북도교육청이 이야기하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제34차 이사회 개최

6월 24일(월), 교육정책 토론회에 이어 오후 8시에는 전북여성일자리센터에서 제34차 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이사회에는 강윤희, 김명희, 노장환, 문채병, 박기업, 서진용, 송승용, 신성하, 이미영, 정용문, 정우식, 정은숙, 한은수 이사가 참석하였고, 남상팔 감사와 조경희 감사, 이선화 총무, 엄소희 간사 등이 배석하였다.

주 안건은 감사 선임 건으로, 그동안 본원에 헌신해온 조경희 감사가 재선임되었다.

시민사회 입장에서 본 김승환 교육감 3년

1. 김승환 교육감 체제가 등장한 지 벌써 3년이 되었다. 남은 임기가 1년이다. 이제 3년이 지난 김승환 교육감 체제의 공과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시기이다. 전북교육행정의 수장으로 과거 법대 교수로서 진보진영의 지지를 받고 출발할 때와는 다른 위치이다. 이미 교육기득권 세력의 주요한 축이 되었다. 진보교육감으로서의 김승환 호를 평가하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다. 구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교육감의 가치와 철학, 도교육청의 기능과 역할, 교육자치권의 한계 등으로 인해 매 사안이 복잡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결정권자로서 직무를 수행한 이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성과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 개혁은 시끄럽고 요란하다. 잔잔하기보다 큰 물결이 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혁의 성과는 단기간에 나오기는 어렵다. 그래서 자칫하면 ‘속빈강정’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개혁은 대부분 성공하지 못하고 미완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치밀하고 성과에 연연하지 않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지 않았다면 역공에 침몰하기 쉽다. 특히 요즈음의 사회분위기에서는 더욱 그렇다. 더욱 철저한 개혁을 위한 분명한 가치정립과 인적 준비와 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한 이유이다.

2. 김승환 교육감은 전북대 법대 교수로서 교육관련 영역의 활동이 전무한 상태에서 혜성처럼 등장하여 진보진영의 지지를 얻고 전국적인 진보교육감 대체와 보수권의 분열로 당선되었다. 즉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는 재야인사의 무한 지지와 몇 단체를 제외하고 여기에 동참한 대다수 시민사회 진영, 전교조, 진보정당의 지지, 무상급식논쟁으로 힘을 축적한 수도권 진보교육감 대체의 전국적인 확산, 구 교육관료에게 식상한 다수 교사와 시민들, 변화를 열망하는 제 세력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고 여기에 당시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민주당 전북도당의 일부 지도부의 지지를 업고 당선되었다.

3. 시일이 촉박했고 급작스런 등장과 지지로 개인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거의 없이 무조건적인 지지로 귀결되어 최소한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출신(고향)의 문제, 논문 자기 표절의 문제, 교회의 사건, 임용 과정의 문제, 가족사 등이 이렇다 할 검증조차 없이 지나간 것이다.

4. 김승환 교육감은 재선 도전 의지를 반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으며, 외연 확대를 위해 이전과는 다른 대 언론 활동 및 대 시민 조직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교육감이자 유력후보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 전교조 중심의 정책 운영 - 여타의 시민사회지지 그룹의 소외감

김승환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그룹의 핵분열이 서서히 나타남. 이것은 너무도 전교조와 일부 초등교수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 특히 과거 전교조 전완지회 중심 조직 운영으로 치우쳐 내외부적 비판의 주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급기야 도의회 인사특위가 구성되기에 이룸. 준비되지 못한 교육감의 한계로 인한 측면이 강한데 기인함.

▶ 의회와의 소통

기본적으로 의회불신 반의회주의 성향, 강단교수 출신으로서의 과한 자부심이 불통으로 나타남. 본인도 선출직으로 교육감이 되었듯이 도의원들도 선출직으로 기본적으로 서로 상호 존중과 대립갈등, 대화와 타협을 적절히 조화롭게 못함, 극단적인 대결로 3년을 보냄. 혁신학교조례와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청 발의가 무산되고 의원발의로 통과된 데서 알 수 있듯이 의회와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실패함.

▶ 자치교육권의 한계에서 교육부와의 소통

교육자치권의 한계가 분명한 합법적인 교육감으로서 교육부와의 원활한 소통, 양보할 수 없는 선에 입각한

대립보다 투쟁일변도의 자세를 견지하여 갈등과 법적 시비, 정책 관련 대부분 소송에서 패소.

▶ 교사, 학부모, 시민과의 소통

학부모와의 소통은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30%대의 지지로 당선된 취약한 지도력을 메우는 조직화의 일환이기도 했다고 보임. 교육의 주체로서 참여 확대, 시민참여의 대체. 차기 선거 준비 일환.

교사들과의 소통은 과거와 큰 차이 없는 모습으로 공문소통과 민원제기 감사 소통으로 침묵하는 다수 교사의 지지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측면이 강함, 학교 현장은 복지부동과 전교조 눈치 보기 현상이 심화되었음. 학생 중심으로 열심히 일하는 교사들의 상실감. 감사가 정책감사 위주가 아니라 민원성 먼지 털이와 사건 해결 및 징계성 감사로 흐른 점이 아쉬움. 페이스북을 통한 신변잡기식 과한 홍보, 교사 사고 날 파악도 못하고 일상적인 교회 홍보 등.

▶ 언론과의 소통

원칙 없는 불통으로 불필요한 마찰이 많음. 홍보비 지출내역을 보면 나눠주기식 지출로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진보교육감으로서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이 없었음. 최근 재선을 결심하며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악수도 청함.

▶ 정치권과의 소통

교육은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지만 가장 정치적인 공간이다.(예: 현 교과서 역사적 사건 기술과 관련된 논쟁) 자치단체와의 원활한 대화를 통한 예산 확보와 지역공동체 건설보다는 일방적인 독주와 무시로 정해진 틀 이외의 확대된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함. 지역교육공동체의 공동주체로서 인식이 부족함.

정책, 공약 평가

혁신학교 - 과도한 공약이행 의지로 내적인 충분한 준비 없이 숫자놀음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 그나마 싹을 피우기도 전에 보통학교와 차별성이 없을 우려가 매우 높음. 질보다 양을 추구하고 단기적 성과에 매달려 대사를 그르칠 우려가 높은 것이 안타까움. 교사들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철저한 준비. 교감, 교장 및 교육 관료들에 대한 사전 준비 등이 미흡한 점으로 초기의 혁신적인 교사와 교육 간부들의 학교 이동 시에 원점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제기됨.

학생인권조례 - 선언적 의미로 학교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적용이 중요 인권 강사를 특정 정당과 좌파 중심의 편협한 인력풀. 학교 현장과 지역교육지원청의 재량권 불용의 권위적이고 불신의 모습 보임.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 교육부와의 법적 공방, 교육자적 양심으로 포기할 수 없는 사안으로 투쟁이 온당하고 비록 법적 공방에서 패소했지만 지지를 보냄. 다만 학교 현장과의 대화를 통한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 이를 통해 현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지지와 외연을 확대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 학부모와의 관계도 유사한 형태에 머물렀음.

유력한 차기 교육감 후보로서 남은 1년 동안 제대로 성과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 과함과 부족한 영역을 구분하고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아야 전북교육의 미래가 보일 것임. 근래 재선 행보로서 약간의 유연성이 언론과 의회와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임. 도민들로부터 개혁과 투쟁의 피로감을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구호나 선언이 아니라 시민 학부모 교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개혁이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임.

>>> 익산지역을 중심으로

김승환 교육감 3년의 지역교육 정책 평가

강 유 희

사교육문화중심 '아이행복' 상임이사

그동안 익산 지역에서는 여러 시민단체가 함께 익산교육시민네트워크를 만들어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익산 교육 의제를 발굴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역의 고등학교 입시, 학교 급식, 청소년 문화, 농촌 교육 등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논의와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지역 교육 의제를 도교육청에 제안하기도 했지만 제대로 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음은 그 교육 의제 중 일부이다.

1. 익산의 고등학교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

익산에는 평준화인문계고,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마이스터고, 전문계고 등 18개의 고등학교가 있어 일정한 경쟁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느 지역보다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성적에 의한 고교 선택과 무한 경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남성고가 평준화 인문계 남자 고등학교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되었고, 도교육청은 남자고교의 학급당 정원을 40명이 넘게 배정하였다. 학급당 학생수를 오히려 늘린 것이며, 도교육청에서는 이에 따른 대책이나 방법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2. 고등학교 입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고입선발고사'를 폐지하라.

전라북도 3개시(전주, 익산, 군산)의 평준화 인문계 고등학교는 선발고사(72%)와 내신(28%)으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그런데 전주는 1년, 익산, 군산은 2년 연속으로 거의 평준화인문계고교 탈락자가 없는 실정이다.

고입선발고사는 전 학년 내신을 준비하면서 선발고사를 대비해야 하는 고입 준비 학생들에게 성적 경쟁만 안겨줄 뿐이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선발고사가 폐지되어야 좀 더 다양하고 내실 있는 혁신학교의 모습을 갖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다.

3.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하고, 지역농업을 살리면서 학생들의 급식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귀 기울여야 한다.

익산시에는 '익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익산시와 지역사회, 생산자, 유통, 소비자인 학교에 도달할 때까지 지역 농업을 활성화하고, 보다 질 높은, 공정한 가격, 친환경 농산물 등을 학교에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식재료 지역제한경쟁입찰(B2B) 방식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B2B 방식은 '거래의 투명성 확보로 급식재료 조달과정의 비리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격 중심의 식재료 조달이 이루어지는 점, 소규모학교(주로 농촌지역 학교)에 불이익을 가져온다는 점, 지역 농업 및 농가와의 연계가 어렵다는 점 등 여러 문제가 있다. 이에 익산지역사회에서는 전라북도 교육청에 수차례 검토 및 보완을 요청하고, 교육감 면담을 했지만 이에 대한 진지한 검토나 합리적 방안 모색,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식재료 조달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도외시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농산어촌교육정책 평가

황 만 길

지역진흥원 원장

전라북도교육청은 보편적 교육복지, 지방교육자치 내실화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 학생 간 지나친 경쟁 지양, 실질적 교육자치 실현을 목표로 교육개혁을 추진해왔다. 이런 교육목표 실현을 위해 농산어촌, 작은 학교 희망 주기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 결과 혁신학교 연착륙, 농어촌학교 활력 증진, 무상급식 정착 등의 성과가 있다고 자체 평가했다.

2013년 중점 사업으로 농산어촌 교육전담부서 설치, 전국 최초로 복식학급 완전해소, 혁신학교 100개교로 확대, 농산어촌 학군제 실행, 농산어촌 자율학교 지정 등을 강력하게 추진해 교육개혁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 목표 지향이 긍정적이고 일부 성과를 인정하더라도 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 관계기관과의 소통과 조정, 추진 과정상의 다양한 의견 수렴체계는 부실하기 그지없었다. 교육이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행정기관, 시민 사회, 관계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작용이 가능할 때 시너지를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개혁을 선악의 이분법적 구도로 풀려고 한 오류를 범하였다. 교육감과 일부 정파적 관점은 선이고, 나머지는 악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는 교육을 둘러싼 구성원 및 다양한 교육적 기체의 상호작용과 환경을 무시함으로써 교육의 문제를 법과 선악구도로만 해결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 결과 합리적, 상식적 진보와 개혁세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데 인색했다는 지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 보수, 상식적 보수의 건강한 견해도 교육에 반영되지 못하고, 바람직한 교육의 밑거름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청렴한 교육현장 구현을 위한다고 했으나 학교급식의 목표에 부합하는 사례로 노력하고 있는 익산의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학교급식 노력에 가장 부정적인 곳이 교육청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정직성과 도그마에 빠진 기계적 평균주의가 자리하고 있다 보니 학교급식 주체 간 결합으로 학교급식의 궁극적 목표와 최선의 먹을거리를 공급하는 내용 및 시스템을 구축해 가는 모범 사례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투명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해야 하는 교육청이 일부 급식업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이 되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일하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 전교조와 전교조 출신들의 품격 및 인성은 교육개혁 과정에서 정말 교육적이었는지 의문이다. 부정하고 싶겠지만 완장을 찬 또 다른 권력집단으로 인식된 측면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 답해야 한다.

심지어 일부 교육관계자들은 전교조와 교육감 측근에 찍히면 상식과 대화는 고사하고 여론 재판에 희생당한다는 비판을 하며 이런 업무처리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들만의 리그가 되었다는 비판이 있다면 이는 결국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주체와 과정상의 과오를 부정할 수 없다.

결국 교육개혁의 목표와 방향은 옳고 부분적으로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하더라도 소통부재에 따른 갈등심화,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의견수렴 부재, 참교육을 추구했으나 오히려 정치적 방식을 택함으로써 내실을 기하지 못하게 되었다.

과연 교육감과 그 노선을 추구하는 주체들만으로 참교육 실현과 교육개혁이 가능한 것인지, 그 물음에 답할 때가 왔다.

신흥계곡 들꽃 따라 걷기

장재성 이사장

6월 8일, 완주군 경천면 걷기는 올해 두 번째다. 3월초 들꽃모임 ‘꽃다지’와 함께 이른 봄꽃 따라 ‘변산바람꽃’이 편 신흥계곡을 알게 된 뒤로 편안한 골짜기가 주는 매력에 빠져 다시 찾아보고 싶었다.

경천면사무소를 지나 대둔산 가는 길로 2Km 남짓 가다가 주유소에서 화암사 방면 오른쪽으로 꺾어 곧바로 한참을 들어 가서 적당한 곳에 주차를 하고 걷기를 시작하면 된다. 완만한 계곡이 5Km 남짓 이어지는데 숲길은 계속 신흥천이라는 조그만 냇가를 따라 다닌다. 물이 많지 않으나 피서객이 많은 여름을 제외하고는 여름 한철을 바라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가져다 놓은 평상을 이용할 수 있다. 길 끝머리에 조그만 암자가 하나 있다. 이곳의 가장 큰 매력은 물길과 숲길이 소박하고 완만하여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침 사무처장님이 들꽃 전문가라서 여러 꽃과 나무들을 공부하며 걸었다. 일부 참여자들은 걷는 것이 더 즐거운 듯 보였으나 일부는 꽃과 나무에 푹 빠져 걷는 속도가 점점 느려졌다.

평소 박쥐나무를 많이 보았지만 이파리 뒤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숨어 있는 줄 처음 알았다. 물가의 이름 모를 나비 매들도 우리를 반가이 맞이하는 듯해서 아주 편안한 한나절의 마실을 할 수 있었다.

나오는 길목에는 밥집이 더러 있어 가족이 한나절의 운동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곳이다. 그래도 섭섭하다면 차를 몰고 백제계 건축물을 소담스럽게 안고 있는 화암사를 찾아도 좋을 것이다.



영경귀



산딸나무



박쥐나무



기린초

뱀사골 부럽지 않은 금산사 금동계곡



‘별유천지비인간’. 학창 시절 많이 들었고 지금도 꿈꾸는 글귀다. 그런 세상이 있기는 한 것인지 모르지만 7월 6일 걷기 모임은 이런 생각을 하게 할 만큼 아름다운 하루였다.

금산사 뒷길은 인터넷에서 모악산 마실길을 치면 안내가 자세히 나온다. 총 7km 정도이며 처음 1시간 정도는 오르막길이지만 이후로는 평탄한 길과 물을 따라 걷는 길이 계속되어 참으로 편하고 싶은 길이다. 금산사 버스종점에서 바로 산길을 오른다. 달팽이 표지를 따라 20분 정도 오르면 정자가 나온다. 여기서 한숨 쉬고 계속 정상 길로 향하면서 오르내리면 도통사 길을 거쳐 백운동 뽕밭이 나온다. 이제 오르는 길은 끝이다. 쉬었다가 바로 정상이 아닌 오른쪽 길로 산허리를 가로 지르면 금동계곡이 나오고, 내려가면서 물길을 즐기다 보면 연리지를 거쳐 금산사가 나오는 길이다.

특히 내려가는 참에 계곡물을 만나는데 평소에도 물이 좋은 편이지만 이번에는 장마 중이어서 어제까지 비가 흠뻑 내린 덕분에 아주 물이 풍부했다. 다들 지리산 계곡으로 여길 만큼, 별유천지비인간을

떠올릴 만큼 아름다운 광경이 계속되었다. 그래서 예정보다 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권오인 회원은 사진작품을 많이 찍을 수 있었다고 기뻐했다. 물길 옆에는 옛 사람들이 산 흔적, 집터 또는 밭으로 추정되는 땅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가능한지 모르지만 이곳에 텐트를 치고 지인들과 술 한 잔하면서 세상을 논할 수 있다면 그것이 신선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일부 회원들이 비를 걱정하여 함께 하지 못해 아쉽다. 다음 걷기는 9월초에 예정하고 있다.





힐링 여행 「느리게 걷는 지리산 둘레길」



숲샘 최세현 선생님

지리산 둘레를 잇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과 자연과 마을, 삶과 역사와 문화의 의미를 다시 찾아내 보듬는 길이라는 지리산 둘레길. 본래의 참 나를 찾는 진정한 힐링을 위해 '지리산 둘레길-양이터재길'로 떠났다.

4월 27일(토), 전북도청 남문 앞에서 우리 문화원 회원과 가족 36명이 출발했다. 모두에게 조금은 낯선 경남 땅으로 향하지만 숲길을 안내해주실 최고의 강사를 모신 터라 마음 든든하고 설렌다. 경남 산청에 살면서 간디농장을 운영하시는 숲해설가, '숲샘'이라는 멋진 별칭으로 불리는 최세현 선생님(진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만나 보니 별명만큼이나 첫인상이 수수하고 내공 있으신 모습이 다. 숲샘과 함께 하동 궁항마을을 출발하여, 하동호까지 걸었다.

지리산 둘레길에는 걷기 좋은 길만 있는 게 아니다. 가파른 고갯길, 오르막과 내리막이 계속 이어지는 지루한 길, 땀별 속을 걷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도 있다. 그러나 더 걷기 좋도록 애써 바뀌내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의 소박함 속에 삶의 아름다움과 가르침이 깃들어 있으리라.

꽃다지, 피나무, 참별꽃 따위의 예쁜 들꽃들을 반갑게 만나면서 논길, 들길, 산길, 고갯길 지나노라니 걷는 것이 마냥 즐겁다. 처음 와 났는 '양이터재길'인데 발이 설지 않을뿐더러, 둘레길 중 으뜸으로 주저 없이 꼽을 수 있을 만큼 고갯길, 숲길도, 골짜기도, 대숲 길도, 길옆의 들꽃들도 모두 예쁘지 않은 것이 없다. 끝 무렵 눈을 가득 채워주는 하동호 연초록 버들가지도... 지금도 그 맑던 숲 기운과 봄 풍경이 내내 눈에 아른거린다. 화푸르게 양증맞던 참꽃마리 꽃잎을 떠올릴라치면 숲 속에 꼭 귀한 갓난아이 두고 온 듯 안 잊힌다.

최세현 선생님의 구수하고 재미있는 숲 해설에 귀를 쫓긋 세우고, 느릿느릿 자연을 벗어나며 걸었던 시간은, 양이터재 고갯마루에서 각자 정성껏 준비해온 점심 도시락을 소년소녀처럼 나눠 먹던 기억은, 돌아볼수록 행복 그 자체였다. 꼭 짜인 일상에서 벗어나 치유와 위안을 얻고, 나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으로 부족함이 없었다.



피나무



숲 개울에서 명상의 시간



참꽃마리



숲길 신록



하동댐에서



하동호 봄빛

희망 2013, 제13회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 >>> 통일 노래가사바꿔부르기대회

우리 문화원이 주최하고 전라북도교육청, 전주대학교, 전북겨레하나, 국민생활체육전북농구연합회가 후원한 '제13회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 통일 노래가사바꿔부르기대회'가 지난 6월 1일(토) 오전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노가바 학교별 사진]





전주공고



김제검산초



전주서중

이 행사는 2000년 남북 정상(김대중 대통령-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역사적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 '6.15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기 위해 13년째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는 초등 11팀, 중등 8팀 등 총 19개 팀이 참가해, 여는 마당 밴드공연부터 시작해서 예쁜 한복을 곁게 차려입은 아이들까지 아름답게 무대를 꾸며나갔다.

류정아 통일교육실장의 매끄러운 진행으로 제1부 기념식을 가진 후, 제2부 대회 사회를 맡은 임동연 사무처장은 "통일은 경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위하는 마음, 부족하거나 실수를 하더라도 이해해주는 마음으로 오늘 대회에 임하면 좋겠다."고 하며, 다 함께 "우리는 하나!"를 외치며 본 대회가 뜨겁게 펼쳐졌다. 조용필의 'bounce', 윤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 등 대중성이 있는 원곡에 통일지향적인 노랫말로 바꿔 연습한 기량을 마음껏 뽐내는 시간을 가졌다.

민족통일상(교육감상) 초등부문은 전주서곡초등학교 김시원 외 21명이, 중·고등부문은 성심여자고등학교 김지수 외 13명이 수상하는 등 많은 상이 주어졌다. [16쪽 수상 내역/수상자 명단 참조]



전주만성초



전주여고



완주비봉초



전북외국어고



고창초



전주용소중



진안부귀초



전주서곡초



전주고



김제검산초



성심여고



전주서신초



전주고백교회



통일 길거리(3:3)농구대회



제13회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 행사 중 청소년들의 역동성을 가장 뜨겁게 느낄 수 있는 통일길거리(3:3)농구대회는 6월 1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주비전대학교 야외농구장에서 진행되었다. 참가 학생들은 모두 교실을 벗어나 맘껏 운동 기량을 펼치는 시간을 가졌다.

총 27개 팀 128여명의 고등학생들이 참가한 이날 행사는 6.15 남북공동선언 13주년을 맞이하여 청소년들이 평화롭고 자유로운 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평화의 소중함을 몸으로 확인하면서, 통일의 의미와 민족 화해를 생각하는 계기를 가지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개최해오고 있다.

비가 올지 모른다는 일기예보에 긴장하고 걱정했지만, 다행히 화창한 날씨여서 차질 없이 경기를 진행할 수 있었다. 27개 팀이 13개조로 나누어 예선 리그전을 치른 뒤, 각 조 1,2위 팀이 14강에 진출하여 오후에는 결선 토너먼트를 치렀다.

대회 결과, 영예의 우승(상패, 문화상품권 15만원, 농구공)은 전라고등학교 클리어 팀이, 준우승(상패, 문화상품권 10만원, 농구공)은 전라고등학교 레드볼 팀이, 3위(각각 문화상품권 5만원, 농구공)는 전주고등학교 지니어스 팀과 이리공업고등학교 TSB 팀이 공동 수상하였고, 8강(각각 농구공 1개)은 삼례공업고등학교의 키다리 팀, 군산고등학교의 군산고1 팀, 전주제일고등학교의 기린봉 팀, 우석고등학교의 우석고 팀이 각각 수상하였다.

대회라서 비록 성적이 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기는 했지만, 승패를 떠나 모두 격의 없이 하나 되어 자유로움과 평화로움을 만끽하는 모습에선 통일의 그날을 상상하기에 충분했다.





(초등) 통일 노래가사바꿔부르기대회

시 상 내 용	수상자	
	학교 / 소속	이름
민족통일상 (전라북도교육감상)	전주서곡초	김시원 외 21명(5-1 김시원 김용한 김정희 양진규 유사무엘 이창길 장혁진 전 준 최성민 하건훈 김민서 김민재 김시하 박연희 박유정 박제희 서채연 오유빈 유수민 이명진 장서희 정하나)
평화통일상 (전주대총장상)	전주만수초	강경민 외 23명(3-5 강경민 박진웅 박충현 서상연 안지후 양승민 양원준 은주영 이동엽 이현솔 조한민 최현우 강서정 박수진 김가는 김연희 노서현 박서현 박채은 송지원 양리안 임유경 장휘민 조수민)
민족평화상 (전주교대총장상)	고창초	변혜인 외 12명(5-5 변혜인, 5-4 이수민 봉진주, 5-7 정채림, 4-1 김윤아, 4-3 정다솜, 4-5 오유지, 4-7 정의진, 3-1 이종우 최연호, 3-2 김현지, 3-3 한다금, 3-6 유수지)
민족화해상 (전주시장상)	전주만성초	이주영 외 11명(6-1 이주영 임수아 강유신 김현서, 5-1 백민재 권용준 박채연, 4-1 임승민 민경현 김채령, 3-1 이영화 최윤서)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이사장상	완주비봉초	유하은 외 27명(6-1 유하은 오슬비 남우진 최수호 이청훈 안태빈, 5-1 이준혁 김지훈 박태영 성열찬 양혜원 유소망 유지현 이상진 이유진 이준오, 4-1 김환 오성민 유세영 이영주 김나근, 3-1 김지후 유성규 유은혜 성여진 남우혁 양혜빈 안태양)
전북겨레하나 상임대표상	전주동초	윤상아 외 21명(6-1 윤상아 김경윤 김혁진 박장희 배용현 오현제 유대석 이민형 이현수 정범준 김수아 김효진 박도희 박수연 서여진 이승은 임서희 장인형 장한이 정수정 허지인 황가연)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원장상	진안부귀초	손효성 외 7명(6-1 손효성, 5-1 김가현 정원화, 4-1 유세희 장연우, 3-1 한승범 조아름 장민정)
	김제검산초	장영준 외 3명 (6-1 장영준 김민우 이찬영 이승봉)
	전주서신초	박정연 외 20명(4학년: 박정연 정예위 조희성 고현아 이은주 김민준 김혜림 김준희 조찬식 김은솔 장서연 박지우 김민재 차유빈 전소연 강민주 나동엽 윤서희 이예흔 최은혜 이선영)
	전주고백교회 (연합)	이현서 외 6명(서원초: 6-5 이현서, 서신초: 1-1 황정은, 지곡초: 3-4 심현, 5-4 배시온, 5-6 심효진, 용동초: 5-1 배예소 6-1 배예린)
	김제검산초	김시현 외 3명 (6-1 김시현 김서현 이은아 김도희)



(중·고) 통일 노래가사바꿔부르기대회

시 상 내 용	수 상 자	
	학교 / 소속	이름
민족통일상 (전라북도교육감상)	성심여고	김지수 외 13명(2-4 김지수 조유리, 2-8 최단영, 2-10 김예진, 1-1 김선오 조아라, 1-2 노현서, 1-4 서호원, 1-7 유지영, 1-8 박혜림 박희주 박서진, 1-9 조민주 이제희)
평화통일상(전주대총장상)	전주서중	박세화 외 4명(3-11 박세화 신서현 이정후, 3-3 장승희, 3-12 김혜은)
민족평화상 (전주교대총장상)	전북외고	김동원 외 13명(2-5 김동원, 2-2 고낙현 권효재 김규리, 2-6 강선주 박예희 이상영, 1-1 정경주, 1-2 박수본 조유진, 1-3 나산 이연수, 1-4 김지우, 1-7 최승원)
민족화해상(전주시장상)	전주고	김형인 외 5명(1-4 김형인 김한샘 김혁 강태구 유석일 이찬영)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이사장상	전주고	권정훈 외 4명(1-4 권정훈 윤상준 백건우 이희성 김현중)
전북겨레하나 상임대표상	전주여고	이소희 외 5명(2-6 이소희 김예진 박원선 김슬기 양민영 육보영)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원장상	전주용소중	이정찬 외 5명 (2-2 이정찬 박지환 김영진, 2-1 임성진, 2-4 김영진, 2-5 정범수)
	전주공고	이요한 외 6명(2-12 이요한 유용배 엄원진 강완희 김찬희 이법관 최용)

통일 길거리(3:3)농구대회

시 상 내 용	수 상 자			
	학교 / 소속	팀명	학년	이름
우승	전라고	클리어	2.3	조효빈 이진재 정재청 김선빈 김다빈
준우승	전라고	레드불	2.3	조태영 오병석 이민혁 소진호 정찬우
3 위	전주고	지니어스	2	시민섬 오건영 이건우 김태준 김상재
	이리공고	TSB	2.3	이재현 이승철 김설용 박진규 황석현
8 강	삼례공고	키다리	3	김성은 김익균 김진우 송진욱 최찬양
	군산고	군산고1	2.3	박준하 전승훈 추연형 김관식 문형우
	전주제일고	기린봉	1	최호정 정유준 이주표 이주형 성민제
	우석고	우석고	2	손지훈 소경록 최지승 배종혁 이용준

무주 칠연계곡에 다녀와서

오 창 록 (전주공고 교사)



이미영 / 박종관 선생님

오월의 첫날, 우리 학교 개교기념일이다. 아침 아홉시 정각에 학교 강당 앞에 집결한 우리는 곧바로 버스에 올라 무주로 향했다. 교육복지부에서 주관한 사제동행 체험활동에 참가하기 위해 쉬는 날도 반납하고 함께 동행해주신 많은 선생님들과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이라 시간을 무척 잘 지켜주어 부드러운 진행을 예고해 주었다.

날씨가 무척 화창하여 모두들 흥겹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시내를 벗어나자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이미영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으셨다. 개교기념일이자 노동절 등 의미 있는 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말씀을 시작하신다. 학교의 상징인 교목, 개교 연도 등 학교와 연관이 있는 간단한 퀴즈를 내어 분위기를 한껏 돋우었다. 교사가 함께 온 학생을 한 가지씩 칭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매우 의미 있었다. 성실, 책임감, 굿은일에 앞장, 잘 생김, 호기심이 강함 등 바람직한 얘기들이 이어졌다. 다시 한 번 학생들에게 퀴즈를 통해 은근히 학교의 역사를 상기시킨다. 개교 당시 학교 위치, 현재 장소 이전 시기 등을 퀴즈 형식으로 진행하여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하고, 노동절이 처음 생겨난 배경 등을 매우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노동절의 시발점이었던 미국 시카고에서 노동자들이 처음 요구했던 것은 8시간 노동시간 준수였다고 한다.

여러 개의 터널을 지나면서 토목과 남상팔 선생님은 터널 건설공법에 대한 설명을 알기 쉽게 해주셨다. 간단한 넌센스 퀴즈를

결들여 적당히 지루하지 않게 분위기를 이끌었다. 끝으로 안도현님의 '자기 자신의 자리' 라는 시를 낭송하기도 하였다.

염색체험은 무주 적상면 용담마을에 있는 박종관 선생님(무주지역 중학교 미술교사) 관사에서 이루어졌다. 동네 어귀까지 복장을 갖추고 마중 나와 성심껏 체험활동을 도와주셨다. 수수하면서도 정감어린 말씀과 행동 하나하나에서 감동이 묻어나온다. 소목과 양파 껍질을 매염제로 사용하고, 철, 동, 명반 등을 염색제로 사용하였다. 학생과 교사들은 자기 맘에 드는 재료를 선택하여 여섯 가지 정도의 색채를 연출하였다.

점심으로 불고기 백반을 푸짐하게 먹으며 무주의 인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점심 식사 후에 우리는 염색해서 말려 놓았던 실크 보자기를 찾아 가지고, 무주군 안성면에 있는 칠연폭포로 이동하였다. 우리는 먼저 계곡 초입에 있는 칠연의충에서 묵념을 하고 계곡 탐방에 나섰다. 우리나라 최고의 비경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아름다운 계곡이 왼쪽으로 계속해서 전개되었다. 물의 양이 비교적 많은 편이어서 마치 구한말 의병들의 우렁찬 함성 소리인 듯 계곡 물 소리가 무척이나 우렁차다. 흘러내리는 물이 바위에 부딪혀 거친 물보라를 일으키기도 한다. 쏟아지는 폭포 소리는 더욱 힘차고 싱그럽기까지 하다. 마침내 도착한 칠연폭포는 7개의 연못이 연이어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주변에서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하고 정감어린 대화를 나누기도 하며 여유롭게 좋은 시간을 보냈다.

시간적 여유가 있어 전주로 이동하는 도중에 진안 용담호를 들르기로 하였다. 물문화관이 마침 수리 중이라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댐을 여유롭게 거닐기도 하고 댐에 대해서 지리과 선생님과 토목과 선생님이 간단한 설명을 곁들이기도 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삼삼오오 사진을 찍기도 하고 일부러 느리게 걷기도 하며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면서 오늘의 체험활동을 아쉽게 마무리했다. 돌아오는 버스 속에서 간단한 정리를 하며 여행의 대미를 장식한다. 한 마디씩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의 좋은 얘기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걸 감사하는 학생들의 정답이 무척이나 아름답다.

귀중한 오월의 첫날이 아쉽게 저물어 간다. 함께 한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감사하다.



용담호



칠연염색 체험



노루오줌꽃

조경희 (본원 감사)

한줄기 청량한 바람과 시원한 폭포수가 그리워지는 계절이다. 요즈음은 산과 계곡, 바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넘쳐나고 북적거린다. 그렇다 해도 이 무더위에 깊은 산 물가에 가서 발이라도 담그고 싶은 유혹을 마냥 떨쳐내기는 정말 어렵다. 이맘때 깊은 계곡 물가 언저리나 초록으로 무성한 숲 가장자리에서 화사한 진분홍 색감으로 꽃꽃하게 피어나 우릴 반기는 꽃이 있다.

바로 '노루오줌' 꽃이다. 이 꽃을 보면 먼저 그 이름부터가 정겹고 재미있어 웃음이 난다. 꽃 이름 치고는 다소 생뚱맞은 이 야생화의 이름에 얽힌 이야기가 재미있다. 이 꽃은 깊은 산 샘물가에 물을 마시러 찾아온 노루가 오줌을 누고 간 자리에서 핀다고도 하고, 그 뿌리에서는 특이한 노루오줌 냄새가 난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동물의 오줌과 관련해 떠오르는 이름 중에 '쥐오줌풀'이 있다. 이 꽃 이름 역시 이름은 지저분하지만 이름과 달리 자갈한 분홍빛 꽃이 모여서 소담스런 모습으로 피어나는데, 꽃은 아름답고 무척이나 매력이 있어 만나기만 하면, 나는 주저 없이 카메라에 담곤 한다. 이렇듯 우리 야생화는 정말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꽃들이 아주 많다. 노루는 사슴과 마찬가지로 우리 옛 이야기나 속담에 자주 등장하는 동물이다. 우리 자생 꽃 이름에는 동물 이름이 들어간 것이 아주 많다. 노루가 들어간 꽃 이름으로는 이른 봄에 피는 노루의 귀를 닮은 '노루귀', 잎의 모습과 잎맥이 노루 발자국 같다는 '노루발', 수염뿌리가 많이 나며 약효가 좋다는 '노루삼', 그리고 노루 꼬리 모양의 털이 있다는 '노루궁뎅이 버섯' 등... 우리 야생화 이름 중에 이 노루 이름이 붙은 꽃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부터 노루가 친근한 동물이기 때문이 아닐는지...

'노루오줌'은 전국 산지의 습한 곳에서 피어나는 범의귀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꽃이다. 이 꽃은 아주 작은 꽃들이 모여서 원추 꽃차례로 피어나는데 다소 진한 분홍빛의 꽃을 피운다. 원뿔모양의 꽃차례는 약 30센티 정도이며 잎은 어긋나기로 갈라지며 달걀모양, 심장모양으로 잎 가장자리에는 굵은 톱니가 있다. '노루오줌'과 비슷한 꽃으로는 꽃차례가 아래를 향하고 있는 '숙은노루오줌'이 있다.

노루오줌은 여러 개체가 군락으로 피어있는 모습도 아름답지만, 깊은 산 물가에 피어있는 한두 송이 연분홍 '노루오줌' 꽃이 내겐 훨씬 더 예쁜 것 같다. '노루오줌'이 피어있는 그곳에서 있으면 이른 새벽에 정말 노루 한 마리가 조용히 물을 마시고 서있는 분위기가 연상되어서이다.

요즈음은 아파트 화단이나 공원 등지에서도 조경용으로 심은 이 '노루오줌'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는 서양의 노루오줌 속 품종들을 개량한 것으로 자생하는 우리 '노루오줌'에 비해 그 색깔이 무척이나 다양하고도 화려해 관상용으로 각광받고 있다.

제5회 이사장배 배드민턴 대회/체육한마당



제5회 이사장배 배드민턴대회/체육한마당을 5월 11일(토), 전주전라중학교 강당에서 열었다. 문화원 회원들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기 위해 시작된 이 행사는 회원과 가족 60여명이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배드민턴대회 결과는 아래와 같다.

시 상 내 용	수 상 자		
	1위	2위	3위
중급(혼합복식)	정성순(전주상업정보고), 박진희	노장환(부안교육지원청), 노소현(서신초6)	윤하용(서천초), 최윤숙(인봉초)
중급(남자복식)	강상호(전주공고), 김규훈(전주공고)	신성하(서신초), 신세벽(우석대2)	구자상(이리공고), 남상팔(전주공고)
초급(여자복식)	류정아(완주비봉초), 이은경(여울초)	유성례(서신초), 김호정(서신초)	이정옥(서곡초), 윤신애(서곡초)
초급(혼합복식 A)	김현봉(용소중), 오복희(학부모)	장재성(전주서중), 정우식(이일여고)	최정원(서신초), 정진형
초급(혼합복식 B)	송승용(김제동초), 심미숙(전주효림초)	홍인재(전라북도교육청), 추창훈(완주교육지원청)	이영환(전북교육청), 김화재(부안교육지원청)
완전초급(혼합복식 A)	이수경(전주공고), 강유희(전북제일고)	이미영(전주공고), 한은수(원광고)	김소미(전주공고), 정호주(전주공고)
완전초급(혼합복식 B)	임은강(기전중 1), 엄소희(본원 간사)	정은숙(전주만수초), 김영경(교육자치연대 간사)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 제6회 그린웨이환경축제에 참가 -

우리 문화원은 제6회 그린웨이환경축제에 참가하여 4월 28일(일) 오전 10시, 전북도청 공연장동 세미나실 2층에서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그린웨이환경축제는 다양한 전시 및 체험을 통해 지구 사랑 실천 방법을 알리고, 환경 사랑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환경축제이다.

임동연 사무처장이 에너지에 대한 강연을 하고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직접 태양광 자동차 키트를 조립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각자 만든 자동차로 야외에서 신나는 자동차 경주도 하였다. 햇벌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화창한 날이라서 태양광 자동차를 시험해 보기에 무척 좋은 날씨였다.

태양빛을 받아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새 가족이 되신 신입회원님을 환영합니다.

환영! 신입 회원(가입일 순)

안순영(전주만수초)
성계숙(전주북초)
한경남(전주만수초)
온혜숙(전주만수초)
최원준(비트로 사장)
정대영(강남성모정형외과 병원장)
김향란(학부모)
이정옥(전주서곡초)
이정미(순창동산초)
소미영(익산초)

축 전문직 합격

축하드립니다.
전북교육을 위하여 귀한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 ♣ **초등 전문분야** 이현근(임실기림초)
- ♣ **초등 일반분야** 김종호(부안주산초)
류정아(완주비봉초)
장영순(이리부천초)
조성훈(완주고산초)
- ♣ **중등 일반분야** 김재흥(군산중앙고)
- ♣ **중등 전문분야** 최병흔(전북체육중)

신인도전

▶ **새로 열 분이 우리 문화원 회원 가입**을 하셨습니다. 참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뜻을 함께할 수 있어 기쁩니다. 새 가족이 되신 것을 회원들의 뜨거운 마음을 모아 환영합니다. 전북교육을 위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 우리 문화원 회원 중에서 이번 **전문직 선발시험에 일급 분 선생님이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각기 다른 위치에서 전북교육을 위해 소중한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 **임동연 사무처장님**(기아자동차)께서 우석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원우회 회장에 선출되었습니다. 어디서나 어려운 일 마다 앓고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열정, 참 보기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윤양금 선생님**(순창여중)께서 5.21(화)~5.27(월) 전주공예품전시관 기획전실에서 열린 '테라스토리' 세 번째 회원전에서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하셨습니다.

▶ **최병흔 선생님**(전북체육중)께서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2000년 전주남중학교에 발령받아 본격적으로 독서교육을 추진하면서, 전북에서 처음으로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하여 독서교육의 새 장을 열고, 주5일제를 맞으며 우리 문화원이 전국적 모범을 만든 독서교실/캠프 프로그램을 자리 잡게 하는 데 기여해오셨습니다.

▶ 우리 자문위원이신 **안도현 시인**이 "박근혜가 대통령인 나라에서는 시를 단 한 편도 쓰지 않고 발표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절필을 선언하셨습니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그 가치를 눈속임하는 일들이 매일 터져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를 바라보는 심정은 '참담 그 자체' 라며 '30년 넘게 시를 써왔고 10권의 시집을 냈지만, 현실을 타개해 나갈 능력이 없는 시, 나 하나도 감동시키지 못하는 시를 오래 붙들고 앉아있는 것이 괴롭다.'고 절필 이유를 설명하셨다고 합니다. 시인의 결심을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더욱 치열한 저항의 문장과 역사를 남겨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적지 않음을 살피소서.

『참 좋은 학교급식』 직무연수(사)교육문화중심 '아이행복'

- ▶ 연수 일정/장소: 2013. 7. 29(월)~8. 2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1층 <과학영재교실>
- ▶ 세부교과 진행표 [『참 좋은 학교급식』 전문성 향상 과정 - 직무연수 (30시간)]

월일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09:00~09:50	10:00~10:50	11:00~11:50	13:00~13:50	14:00~14:50	15:00~15:50
7. 29(월)	한국농업과 먹을거리에 대한 이해-축산분야 조성진(수의사, 박사, 원광대 출강)			친환경 식생활에 대한 이해-자연영양학 박승태('자연주의 임신 태교 출산' 저자)		
7. 30(화)	GMO, 무엇이 문제인가? 김은진('유전자 조작 밥상을 치워라' 저자)			현대인의 식생활문제와 식품첨가물(심화) 안병수('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 저자)		
7. 31(수)	음식과 몸 현승은(한 의사)			어린이 식생활교육 김은지(서울 신영초 영양교사)		
8. 1(목)	식량위기와 한국농업 정은미(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사회의 식품안전 실태 이후락(KBS TV (전)소비자고발 먹을거리 관련 PD)		
8. 2(금)	환경호르몬의 이해 고혜미(방송작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 이종원(익산학교급식지원센터사무장)		

지금 이 기회입니다. 북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신청서가 홈페이지(www.blue21.or.kr)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작성
하시어 담당자(장재성, rudnf78@hanmail.net, 010-4655-9803)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www.blue21.or.kr / 560-837 전주시 완산구 중화사동 2가 655-8(3층) / ☎ 063) 905-0218 Fax 063) 227-0650